

“연말특수 기대에 버텨보려 했는데”... 희망 잃은 자영업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 8월 매출 5분의 1로 줄어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밤잠설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향후 3차·4차 소비지원 불가피
지역화폐형 재난소득 지급해야”

“가게에 나오면 손님 대신 종일 벽만
보고 있다가 눈물이 나네요.”

23일 서울시 구로구 한 옷가게 사장
의 낮두리다. 장씨는 “주로 사무실이 모
여있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과 퇴근 시
간 등을 이용해 가게를 찾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손
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에 들어서며 매출이 5분의 1로 줄
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시간 단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어 “다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하
향되고 이제 좀 버텨보려 했는데 300명
대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떨려 매일 밤잠을 설쳤다”고 털
어놨다.

장씨의 말처럼 22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장씨의 옷가게 뿐만 아니다. 음식점
과 술집 등은 더욱 걱정이다. 특히 연말
특수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손님들
발걸음이 뜰까 긴 가게문을 열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술집을 운영하
는 한장진씨는 “저번 달 150만원을 벌었
는데, 월세로 120만원을 냈다. 30만원
도 공과금 내고 하면 남는 건 거의 없
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거리두기 2.5단계 때도 12
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감축했다.

이어 “술집과 음식점 같은 곳은 연말
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장마나 여름·가을
영업 적자를 매꿔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데 정말 막막한 심정”이라고 고백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에서 음
식점을 운영하는 김종욱씨는 “8월 2.5
단계 때는 하루 매출 5만원이 채 안 되
던 때도 있었는데 앞으로 2주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
었다. 그는 “1학기 때는 코로나19 초반
이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란 희망도 있었지만 1년이 다 돼가며
희망은 잃은 지 오래”라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라

추가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
장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트위
터를 통해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
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
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정책시행
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
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강화군에서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지원한 것처럼 직접 지원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해 달라”
고 호소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한진그룹.

“한진칼, 산은에 유상증자 추진 ‘적법’ 사모펀드 KCGI, 가치분신청 무책임”

한진그룹, 사모펀드 KCGI에 반박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추
진을 앞두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
I의 ‘신주발행 금지 가치분 신청’에 대
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3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치분
신청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이 산
업은행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
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다”라며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산은에 대한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
하고 적법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 대
해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
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
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다”라며 “이번 가치분 신청은 지극
히 무책임한 행태다.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지원 반대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
난 18일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관
련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구조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
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신주발행 금
지 가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진그
룹 내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
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
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 이러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것이 이
같은 가치분 신청의 주요 골자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오는 25일 서울중
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한진칼의 제3
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
행금지 가치분 관련 심문에 대해서도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가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무
산된다.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
문학적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몇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
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
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됐던 안타
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
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
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
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불러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
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소포상자에 ‘구멍손잡이’... 집배원 고충 던다

과기정통부-우분, 7kg 이상에 적용
중량물 하중 10% 이상 줄이는 효과

7kg 이상 우체국 소포상자에 구멍손
잡이가 달려 상자 분류부터 배달까지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진다. 이에 따라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의
노동의 고충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
부는 23일부터 구멍손잡이가 있는 우체
국소포상자를 판매한다. 소포상자 수요
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하며,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는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종의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
다. 정부 여당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
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
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 및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포상자
는 총 6종으로, 구멍손잡이는 7kg 이상
고중량 소포에 사용하는 5호 소포상자
에 만들었다. 재질도 원지배합을 강화



23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들이 구멍손잡이가 없는 소포상자와 구멍손잡이가 있는 소포상자를 비교해 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해 고중량 적재에도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보강했다.

소포우편물은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
균 10번 정도 작업이 이뤄진다. 무거운
상자는 들기가 어렵고 장갑을 끼고 옮
기면 미끄러지기도 해 작업이 어려웠지
만, 구멍손잡이로 고충을 덜어 줄 전망
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마
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경우, 중
량물 하중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체국에서

판매한 7kg 이상 물품에 사용한 소포상
자는 370만개이다.

이날 구멍손잡이 소포상자를 판매하
는 서울중앙우체국에는 이날엔 더불어
민주당 대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신동근위원장, 이수진 총괄간사, 이용
빈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
고위원, 구본기 생활경제 연구소장, 안
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종석 우정사
업본부장,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이 방
문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이랜드, 랜섬웨어 대응 TFT 구성 등 총력

50여개 지점 기본영업 정상적 진행

이랜드그룹은 지난 22일 새벽 해의 소
재로 추정되는 유포자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
고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이랜드 본사
서버를 대상으로 자행되었으며, 현재
이랜드는 TFT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랜섬웨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및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2일 오
전부터 뉴코아, NC 등 23개 유통 지점
영업을 중단하고, 서버 전체를 셧다운
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조치를 단행
했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50여 개 이
랜드리테일 산하 대부분의 지점은 일
부 기능을 제외한 기본 영업을 정상적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 조치를 완

료한 상태이며, 랜섬웨어 사태 이전으
로 원상복구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전
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고 있
으나 고객 관련 정보는 별도로 구분된
서버에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
다”라고 말하며, “사태 해결 및 피해 정
상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안
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